2. 투고세부규정

- (1) 논문 작성 양식
 - 1) 한글(5.0이상)로 작성. 원고의 길이는 20쪽을 기준으로 하며 30쪽을 초 과할 수 없다.
 - 2) 투고논문은 아래 (3)번 항에서 제시되는 스타일 IDKL.sty을 사용하여 작성하다.
 - 3) IDKL.sty은 학회 홈페이지 (http://germanstudies.snu.ac.kr) 독일어문화 권연구-논문투고규정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.
 - 4) 논문작성을 시작하기 전 🛅 를 누르고 바탕글을 제외한 모든 기존의 스타일항목을 삭제한 후 창의 오른쪽 두 번째 메뉴인 '스타일 끼워넣 기'에서 다운받아 놓았던 IDKL.sty을 추가하고 나서, 논문작성을 시작 한다.

(2) [모양-편집 용지](먼저 F7 key를 누른다.)

용지종류	용지여백		용지방향
	위쪽	24mm	
	아래쪽	29mm	
사용자 정의	왼쪽	26.5mm	
폭: 158mm	오른쪽	26.5mm	세로
길이: 231mm	머리말	15mm	
	꼬리말	0	
	제본	0	

- (3) [모양-글자 모양(Alt key+L), 문단 모양(Alt key+T)]
- 1) 본문
 - ① 글자모양: 글꼴 (대표) 한양신명조, 크기 10.3pt, 장평 90%, 자간-10
 - ② 문단모양: 줄간격 160%, (첫째 줄) 들여쓰기 10pt, 왼쪽·오른쪽 여백 0pt

2) 인용문

- ① 글자모양: 글꼴 (대표) #신명조, 크기 9.3pt, 장평 90%, 자간-8
- ② 문단모양: 줄간격 150%, 왼쪽 여백 15pt, 오른쪽 여백 0pt

3) 각주

- ① 글자모양: 글꼴 (대표) 바탕, 크기 8.5pt, 장평 90%, 자간-8
- ② 문단모양: 줄간격 135%, 왼쪽 여백 0pt, 오른쪽 여백 0pt, 내어쓰기 14.3pt

4) 참고 문헌

- ① 글자모양: 글꼴 (대표) 한양신명조, 크기 10.3pt, 장평 90%, 자간-8
- ② 문단모양: 줄간격 150%, 왼쪽 여백 0pt, 오른쪽 여백 0pt, 내어쓰기 30pt

5) 논문 초록 및 주제어

- ① 글자모양: 글꼴 (대표) 한양신명조, 크기 10.3pt, 장평 90%, 자간-8
- ② 문단모양: 줄간격 150%, (첫째 줄) 들여쓰기 10pt, 왼쪽·오른쪽 여백 0pt

6) 제목

- ① 논문 제목: 글꼴 HY태명조, 15pt, 장평 90%, 자간-8, 중앙 정렬
- ② 대제목: 글꼴 HY태고딕, 12pt, 장평 90%, 자간-8, 왼쪽 정렬
- ③ 중제목: 글꼴 한양중고딕, 11pt, 장평 90%, 자간-8, 왼쪽 정렬
- ④ 소제목: 글꼴 중고딕, 11pt, 장평 90%, 자간-8, 왼쪽 정렬 ※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.

(4) 번호 및 부호

(개) 번호

- ① 대항목 번호: I. II. III. ... (모양은 앞의 (3)번 항 6) 제목 참조)
- ② 중항목 번호: I.1. I.2. II.1. ... (모양은 앞의 (3)번 항 6) 제목 참조)
- ③ 소항목 번호: I.1.1. I.1.2. ... (모양은 앞의 (3)번 항 6) 제목 참조)

(나) 부호

- ① 본문중 인용 부분: "..."
- ② 인용 속의 인용: '...'
- ③ 단행본 제목: 『...』(호글 메뉴 입력-문자표에서 찾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-글자판-글자판 바꾸기-기타 항목의 겹낫표 입력을 설정해 놓고 사용한다. 그럴 경우 자판 p자 옆의 두 키가 Shift키와 같이 칠 경우에는 『』로, Shift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』로 사용 가능하다.)
- ④ 논문, 시 등의 제목: 「...」(위의 ③ 참조)
- ⑤ 인용 시 필자의 중략: [...]
- ⑥ 인용 ""과 강조 ' '를 구분하여 사용한다.
- (5) 한글과 원어의 병기: 이 경우 원어는 괄호로 묶지 않고, 바로 한글 뒤에 한 칸 띄고 이어서 쓴다. 한 번 쓴 원어를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.
 - (예) 토마스 만 Thomas Mann은 [...]

독일어 분철의 경우 하이픈(-키)을 사용하지 않고 여린 하이픈 (Ctrl와-키를 동시에 누름)을 사용하고 인명은 가능하면 분철하지 않는다.

(6) 인용문 및 예문

- (개) 문단, 글자 모양은 앞의 (3)번 항 참조
- (나) 짧은 내용의 인용은 본문 속에, 긴 내용의 인용(3행 이상)은 본문에서 따로 떼어 별행으로 기술하고 들여쓰기를 한다.
- (H) 별행 인용에서는 따옴표를 생략하고, 인용문의 위아래를 한 줄 띄며, 국문 논문에서 번역문과 원문을 병기할 경우, 번역문을 먼저, 원문을 나중에 쓰 되, 번역문과 원문 사이에는 줄을 띄지 않는다.
- (7) 인용 출전 표기 (인용 출전 표기방식 일원화)
 - (개) 인용 출전은 본문삽입형(Lehmann 1995, 123)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한다.
 - (내) 괄호 앞뒤는 모두 붙여 쓰고, 저자명과 발행연도 사이에는 한 칸을 띄우며,

발행연도 다음에 쪽수가 나오면 쉼표를 찍는다.

- (다) 저자명은 서양어의 경우 성 Nachname만 표기한다.
- (라) 문장 처음 또는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 앞 단어와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.
 - (예) 피네만(Pienemann 1998)은 여러 어순의 처리와 관련하여 […]
 - (예) "자연의 역학적 숭고"(칸트 2005, 112)를 느끼기 위해서는 […]
- (마) 문장 끝에 삽입하는 경우 인용 출전 표기 후 마침표를 찍는다.
 - (예) […] 폭력적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(푸코 2003, 501 이하 참조).
 - (예) […] 시대상을 탁월하게 묘파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다(Vgl. Kracauer 2011, 88).
- (배) 두 가지 이상의 인용 출전을 같이 표기할 때는 세미콜론(:)으로 구별한다.
 - (예) [···] 오히려 실제 인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(Vgl. Kluge 1999, 136; Deuber-Mankowsky/Schiesser 1994, 72), 지금까지의 […]
- (사) 각주에서 다루는 인용의 출처도 본문삽입형으로 제시한다.
- (8) 주: 각주로 하며, 각 쪽 밑에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한다.
 - (예) 문단, 글자 모양은 앞의 (3)번 항 참조.)하였다. (본문 끝줄) 5cm의 줄 (이 줄은 각주 작성시 자동으로 생김) 1) 이 논문은 ...

 - 2) 본 연구는
- (9) 참고문헌: 본문 뒤에 이어서 쓴다.
 - (개) 내용: 문단 모양 및 글자 모양은 앞의 (3)번 항 참조.
 - (나) 문헌배열 순서: 국문, 독문 / 영문(기타 로마자 사용언어 포함)순으로 배열 하고, 각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.
 - (다) 저자명 다음에 칸을 띄우지 않고 발행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.
 - (예) Iser, Wolfgang(Hrsg.)(1966): Immanente Ästhetik-Ästhetische Reflexion.

Lyrik als Paradigma der Moderne. München.

- (라) 외국인 저자의 국문 번역서의 경우, 저자의 우리말 이름을 '성, 이름' 순서로 표기하며, **번역자의 이름은 저서명 뒤에 괄호 안에** 넣는다. (예) 푸코, 미셸(2003): 광기의 역사(이규현 역), 나남출판.
- (m) 잡지나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글(논문)의 경우, 반드시 쪽수를 밝힌다. (이때 **쪽수 기호 S나 pp 등은 넣지 않는다**.)
 - (예) Enzensberger, Hans Magnus(1976): Poesie und Politik. In: Ders.: Einzelheiten II. 4. Aufl. Frankfurt a. M., 113-137.
- (바) 학회지 논문 표기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.
 - (예) 정항균(2014): 페터 바이스의 『마라/사드』에 나타난 폭력 담론. 독일어문화권연구 23, 149-182.
- (사) 결론의 마지막과 참고문헌 사이에 강제로 쪽을 나누지 않는다.
- (10) 논문 초록 Zusammenfassung 및 주제어 Schlüsselbegriffe
 - (개) 문단 및 글자 모양은 앞의 (3)번 항 참조.
 - (+) 국문원고와 독문원고 모두 국문요약과 독문요약 및 주제어를 원고말미에 제목과 함께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그 분량은 각각 1쪽 내외로 한다.
 - (다) 참고문헌과 논문 초록 사이에 강제로 쪽을 나누지 않는다.
 - (라) 독문요약에서 작품명은 이탤릭체로 쓴다.